

남과 다투지 않는것이 불공

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내가 살다가 죽는 날도 오늘이요, 내가 다시 태어날 날도 오늘이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광 스님은 '불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향기로울 수 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 먼저 이미자의 노래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음정 박자 무시하고 멋지게 불렀다. 생각나는 가사 중 일부분을 떠올리면 '.....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는 구절이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도 다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갈 이유가 저마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광 스님은 사자좌에서 권위 같은 것을 벗어난 지 오래고, 음정 박자 무시하고 기분에 취해 불러대는 노래는 청중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다.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이미 간파한 스님은 항상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이미지가 담긴 메시지를 들려준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실생활에서 일화를 가져오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전생 빛 같았다 생각하면 화 날 일이 없지요. 가장 좋은 불공은 남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 일이 생겨도 '그까짓거' 하면서 넘겨 버리면 그것이 인욕이고 수행하는 것이지. 불자들이 이유 있는 삶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위의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피었다가 지는 꽃보다 맑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주인 노릇하는 것이 향기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였다.

"내 주위가 점점 아름답게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위를 볼 때 아름답지 않거나 주위를 볼 때 환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스님은 어느 새 주제를 바꾸어서 요즈음 독서계와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는 다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설을 주장한 다윈은 20세기의 과학과 예술과 정신적 틀을 바꾸어 놓았기에 탄생 이백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더 그 의미가 깊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승업경>에는 지구가 만들어진 과학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것을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그 좋은 성경책에도 태초에 하늘이 열리라 하니 하늘이 열렸고, 땅이 있오라 하니 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승업경>에 언급된 지구의 탄생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원각(圓覺)의 밝음과 허공의 어둠이 만나서 바람을 일으켰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쇠불이가 생기고 거기서 사랑하니 불이 생겼고, 불이 있으니 물이 생기게 되었지. 젖은 것은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땅이 되었는데, 또 바람이 부니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니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이슬이 되는 것이다. 산천초목 등 60만 종류의 생명체가 108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지구 위에 만나고 이별하며 살게 되었다."



선지식의 찾아서 자광 스님

자광 스님은 1943년 문경 출생. 1970년 팔공산 복지장사에서 도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1년 지리산 실상사 주지, 1983년 회양산 봉암사 주지, 1989년 운달산 김룡사 주지, 2002년 적지사 주지 역임. 1989년 적지사 녹원 대중사로부터 호산(皓山) 법호를 받음. 2004년부터 현재까지 김룡사 회주. 지금은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이며, 문경불교대학 학장이다. 저서로는 <좋은 만남 멋진 이별> <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등 다수 있다.

"지구가 생겨난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불생 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라,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나고 지구가 생긴 것은 창조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지요. 여러분! 불교는 참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불자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법당에서 나가면 부처님의 가르

침을 널리 퍼주세요." 자광 스님은 대중가요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일부 개사한 것을 노래 부르는 것으로 법문을 끝맺었다. 부처님의 원만덕상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청정 법신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대자대비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무용 내 마음도 그와 같이~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9. 천연도인 성공스님

성공 스님은 승주군 송광명 장안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송광사에서 사미·사집과를 보고, 해인사에 들어가 사교·대교를 본 뒤 선방에서 두 월을 나고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서울 한 번 와보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시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도량석, 종성, 예불하고 1시간 참선을 하시고, 장엄염불을 하여서 하신 뒤 공양할 때까지 청소를 하셨다. 공양시간에는 언제나 죽비를 들고 치는데, 그 죽비가 자그마치 5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망태기 메고 산에 오른다. 출발하면서부터 "도는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

리지만 도인들 입에 들어가지만 하면 모두가 성불할 것입니다." 새벽이면 청소하러 나왔다가 감 떨어진 것, 도토리, 밤 떨어진 것을 주워서 모았다가, 한 겨울이 되면 굵고, 찌고, 목을 만들어 상사당 선방, 문수전 대중에 내놓으면 누가 갖다 눈 졸도 모르고 잘도 먹는다. 음력 시월 중추 때쯤 무르익은 다래를 따러다가 옛날부터 보아두었던 발통 밑에서 꿀 한 사발 받아오면 배 아프고 기침하는 사람에게겐 돌도 없는 영약이 되었다.

하루는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초발심자경문>으로부터 <지문경론>을 읽고 점심 먹고 나서서 동안 선사 <십현

활히 밝아질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스님을 뵈오니 저절로 입에서 쏟아집니다."

그는 광주 금남로 1번지에서 엄청나게 큰 요정을 하던 마담인데, 하루 아침에 발심하여 출가 득도 하였다.

특히 스님께서 좋아하는 <중도>는 하도 들어서 잊혀 지지 않는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배움이 끝난 한기환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 것을."

무슨 책이 되었는지 한 번 보면 읽고, 두 번 보면 이해하고, 세 번 보면 외운다. 문장이 길고 짧은데 관계가 없다.

해인사에 들어가 사교·대교 본뒤 앉은자리서 일생보내 스님의 독경 소리 듣고 울던 여인 하루아침에 발심해 출가

어렵다네. 잠든 몸을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빛과 언어를 떠나지 말라."

양나라 지공 대사의 <대승찬>과 12시14과 송을 외우고, 귀중 화상, 향엄 스님, 용아 스님 시도 외운다.

"용아산 속의 웅한 마리 세간의 빛깔이 아니네. 재주 있는 사람이 열두 번 그 려도 그 용은 그리지 못한다네."

그런데, 어느 곁에 불에는 불 나물이, 여름에는 여름 벼섯이, 가을이면 가을 열매가, 겨울에는 겨울 이삭이 바구니에 가득 찬다. 이고, 지고, 들고, 허리가 휘도록 가지고 와서 할일 대중에 공양할 때는 입이 함박 만큼 벌어진다.

"맛있지요. 산과 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 쪼개 합니다. 살진 고사리도 꺾으면 눈물을 주르르 흘

답>, 부 대사의 <심왕명> 등을 외우는데, 한 여인이 담벼락에 기대 한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통곡하였다.

"거 누구요. 왜 남의 절 문 앞에 서 울고 있소?" "알 수 없습니다. 스님 독경소리를 들으니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전생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숙에 빠져 헛세월 보내고 나니 원통해서 울지."

"제가 어떻게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전생에 많이 얻어먹었으니 잘 지 않고 되겠는가!"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갑자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을 줄줄줄 외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고르는(취사선택 하는) 것이 병이네.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만 없으면

너 마지기 눈을 은사스님께 받아 일 년이면 쌀 세 가마를 자기 뚝으로 내놓고, 후 풍년이 들어 남게 되면 대중공양을 하는데,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절안의 노스님들, 회갑, 칠순 잔치를 해드린다. 도토리 메밀묵을 섬섬옥수로 장만하고, 찹쌀로 떡을 썰 부처님께 올리면 동계몽개 솟아오르는 김을 보고 누구나 침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많이 들 잡수세요. 죽기 전에, 못 먹고 죽으면 영혼도 불쌍하게 됩니다."

잡쌀떡에 천연벌꿀을 찍어 실 날처럼 붙여지는 꿀방울을 무명지로 칭칭 감아 이 빠진 스님들 입에 넣어주시며 꽃노래를 부른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더 늙기 전에 잡수세요. 이빨 빠지면 못 먹으니 성했을 때 잡수세요."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호움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를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 ◇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 (7.5 × 35cm)
- ◇ 육각초 - 7.5 × 45cm (적색, 파랑, 노랑, 연두, 주황, 백색)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 (범광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원터치 연등같이 편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구루 128
고구루 128-A

SMD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광용, 외광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음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안전지용초, 방생, 탈출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범광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광, 외광, 연등용 전선 시공